

[보도자료] 쿠팡, '2019 썸머패션위크' 진행

2019. 5. 28.



- 여름철 패션 신상품과 인기상품을 모아 다음달 5일까지 진행
- 린넨, 라탄 등 자주 찾는 키워드로 쇼핑 편의성 제고
- 일부 인기 브랜드 상품 최대 75% 할인

2019. 5. 28. 서울 – 쿠팡은 여름 패션 상품을 모아 '2019 썸머패션위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이른 더위로 여름 의류 및 잡화를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마련됐다. 상품별로 최대 75%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린넨, 셔츠원피스, 스트라이프, 라탄 등 고객이 많이 찾는 여름 인기 키워드를 모아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여성패션, 남성패션, 스포츠패션 등 주제별로 제품을 분류해 쉽게 둘러볼 수 있다. 폴햄, 캘빈클라인, 셀리 등 인기 브랜드 신상품부터 베스트셀러 상품까지 모은 '브랜드관'도 함께 선보인다.

또 행사기간 동안 블루마운틴, 크룩스, 리바이스키즈, 빈폴 등 인기 브랜드 상품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특가 이벤트도 함께 운영한다.

티파니 곤잘레스 쿠팡 시니어 디렉터는 "본격적인 여름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의류부터 잡화까지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찾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쿠팡에서는 의류 또한 주문하면 출근, 등교 전 새벽에 받아볼 수 있는 와우배송을 운영하고 있어 쇼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구매한 패션상품은 일부 상품군을 제외하고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원하는 색상이 아니거나, 잘 어울리지 않을 경우 구입 후 30일내 무료 교환, 반품 가능하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